

◎ 교화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서서초구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tchurch.or.kr

## 서울성경대학 내달 6일 개강

갈라디아서 · 사무엘상 · 스바나 · 느헤미야반 등과 음악교실, 리더양성반도

평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6학기가 9월 6일(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학기에는 느헤미야반(아담반)를 비롯하여 갈라디아서반, 사무엘상반, 스바나반 등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음악교실도 예년과 같이 진행되며 리더양성반(L. T. C)과정을 신설됐다. 이번 학기 강의 시간은 월·화·목·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이다.

### 서울성경대학 제 6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갈라디아서	월요일 오후 8시	정운돈 목사	9월 6일
사무엘상	화요일 오전 6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스바나	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9월 7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9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 안진선 선생	9월 9일
리더양성반(L.T.C.)	금요일 오후 7시	고경선 목사	9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성경대학 제 6학기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각 과목당 오천원이나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성도에 한하여 입학금 오천원을 별도로 받는다. 제 6학기 서울성경대학의 강좌, 시간, 강사 및 개강일은 <표>와 같다.

### 소년소녀가장 초청 오찬

무지개회(회장 이인선 권사)에서는 19일(목) 서초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9명과 그들의 가족을 초청한다. 이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 해 동안 돕고 있는 아들이다.

이날 이종윤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며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무지개회 회원들은 지난 주간 소년소녀가장들의 가정을 일일이 심방하며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광복절 54주년을 맞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말씀을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교회와 국가는 두 기관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롬13:1).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그 어느쪽도 상위기관이 아니며 대립관계에 놓여서도 안되고 영역 자주권을 인정하면서 상호보완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는 그 영역과 기능이 다르므로 정부가 교회 일에 관여하거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일을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교회가 법을 어기고 혼란을 야기할 때는 국가가 적절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는 인간의 영·육의 관계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관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진정한 애국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된 삶의 양태 속에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란 국민이 모여 공동의 이익

을 추구하는 것으로 영토, 주권, 국민이 그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

광복 54주년 기념주일에 상고하는

##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국가

육의 진척을 위하여..." 라고 시작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애국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형제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은 배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가진바 역사와 풍습과 개인적 재능을 개발하여 인류 전체가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가 불공정한 거래를 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견제의 기능을 바로 해야 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불의를 범하지 않도록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3. 개인적으로는 양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양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지식을 가지고'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정치 참여는 지역감정, 개인적인 기분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한 개인의 인식의 차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조심하면서 기도와 정직한 양심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영과 육이 모두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도할 책임이 있다.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벧전2:13)라고 하여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일의 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기독교인은 주님을 위해 양심을 따라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시정을 요구하며 비판을 해주어야 한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의 권세(a power)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권세(the power)는 절대적인 권세요 영원한 권세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양심을 따라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사야 강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사야 25장 5-10절

9절의 '밭'이란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사모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이토록 사모해야 합니까?

1.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주님을 사모합니다(사 25:12).

"밭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로다"(6절). 강한 자의 밭이 아닌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의 밭이 원수의 머리를 밟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는 것은 진리의 행위며 사실주의에 입각한 정직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이유는 사람이 낮은 데로 내려가서야 하늘나라의 선물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님은 자기 백성의 길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청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7절). 복종과 곧고 거룩한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아시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길을 알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해

야 합니다.

7절의 "평탄하게 하시도다"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 "달아보신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의인

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야 합니다.

4. 주님은 심판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9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도입니다. 주님이 심판하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없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밭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청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밭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사 26:5-10)



이종운 목사

들이 만나는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의인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3.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8절).

주님이 심판하시는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은 사람은 주님께서 정계의 채찍을 드실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므로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은 사람, 주님을 늘 앙망하는 사람은 잠시도 주님을 잊을 수 없으며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밭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9절). 환난의 밤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시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심판날에 소리를 치고 나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10절).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은 정직한 땅에 살면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향하여는 눈을 감고 우연이나 운명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그들에게 임합니다. 저들은 보려고 하지 않지만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하고 시기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한 자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농어촌전도를 마치고

■...농촌전도단이 지난 주일 저녁 파송식을 갖고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소재 금산 마장교회로 파송되어 8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3박 4일간 전도활동을 폈다. 전도단은 축호전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개최 등으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도 열었다. 또한 지역봉사와 의료 및 미용 등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폈다. 170여 세대 420명 주민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편 결과 40여 명이 새로이 주님을 영접했다.

광을 돌린다.

감사드리며... 결실을 기대합니다

김명복 전도사(마장교회)

3일간의 천국잔치

오광환 집사(농촌전도대원)

농촌전도단원 62명이 도착한 마장리는 유난히도 사당, 개인의 숭덕비, 공적비가 눈에 많이 띠었으며 사람을 높이고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한 곳이었다. 마을에 교회는 있으나 총인구 420명에 불과 30명만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농촌전도단원 도착하자마자 농협창고에 페인트칠을 하고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전등을 달면서 8월의 무더위 속에 땀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굳게 닫혔던 마음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팀을 나눠 축호전도를 하고 주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하고, 머리를 손질해 주고, 침술로 병을 치료하며 약을 나눠주고 연막분무기로 아침 저녁 해충방제를 했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다.

특히 저녁 집회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민들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새로이 믿음생활할 것을 결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동리의 이장은 마을이 생긴 이래,이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감동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행사 때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전도활동을 통해 농촌교회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교인이 배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녹슨 자화상

장양일 집사(농촌전도대원)

일상의 일들을 접어두고 농촌전도대의 대열에 합류했다.

예배 후 내게 주어진 임무대로 지역봉사활동 중 하나인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해 마을회관 게시판을 둘러 보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3년에 시공한 후 방치해 두었다는 녹슨 게시판을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

는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기도와 함께 악조건 속에서 피땀나는 싸움이 시작됐으나 주민들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었다.

그때 난 내 자신이 마치 녹슨 게시판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집회 때 깊은 회개 가 터지면서 내 마음의 녹을 제거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둘째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에 감사하며 봉사할 때 배혜가는 게시판을 보는 주민들의 표정을 보며 그날밤 집회에 놀랍게 역사하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았다.

녹슬었던 내 영혼이 이번 전도대 활동을 통해 변화되었다. 나의 나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박 4일 동안 좋은 일기 속에 서울교회 농촌전도단의 활동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곳 마장 1·2·3리 주민 중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전도활동 기간 동안 교회 앞 농협창고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집회 장소로, 이발소와 미장원으로 그리고 식당 및 숙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대원들의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과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도대원 여러분의 헌신 속에 마장리 지역에 놀랍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님과 농촌전도대원들, 그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농촌전도는 제가 겪어본 그 어느해보다 뜨겁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학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여름성경학교는 저에게 큰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장교회를 찾아온 천사들은 3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첫날엔 20명 정도였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10명의 친구들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찬양, 그 밖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어린 친구들이 주님을

마장교회 여름성경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예전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찬송과 울동을 배우며 선생님들과 정들었어요. 놀이 재미있었구요 그런데 이렇게 아쉽게 끝나니까 눈물이 딱나네요. 선생님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차라 외우기도 쉬워요.

박민(마장교회 초등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

알아가며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마지막 날엔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축복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폐회예배 때 한 사람씩 부동켜 안고 기도할 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가슴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더 알게 된 마장교회 친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져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렵니다.

- 서지영(농촌전도대원, 대학부) -

리의 고침받아야 할 부분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배가 몹시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저의 아픈 것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요즘 제가 컸다고 부모님께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또 집게명에도 있듯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가끔 한번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발걸음을 마장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보란(마장교회 초등부)

●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② ●

# 제 2전국은 의인 10명이 한다

김광신 (장로, 12교구)

어찌하든지 지금의 위기는 극복해야겠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제 2전국운동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운동이 국민의 절대적 호응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으련만 관 주도니 민간 주도니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계속할 뿐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고 국민의 반응도 시큰둥한 것 같다.

지금 정부는 외환 위기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재벌의 구조조정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갖가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진행속도도 느리고 처음 시도한 의지도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54주년 광복절을 맞이했고 나라사랑의 소명을 무거운 짐으로 안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으며 어디를 고쳐야 할지의 원인과 처방이 다양각색이고 구구하기만 할 뿐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천만을 넘는다고 자랑하면서 의인 10사람만도 못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서 곳곳에 비리와 부정이 표출되고 이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짓밟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와 어울리면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므로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 회식이나 동찬 모임에서 술잔이 왔다갔다 할 때 으레 하는 말이 있다. "여보게 내가 아는 아무개 장로도 술을 잘 먹던데 자네만 유독 고집이냐. 그냥 먹어. 술도 음식이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유혹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속으로 하는 말이 이렇다. "술 잘먹는 아무개 장로는 엉터리야. 고집부리는 저 친구는 진짜야, 진국이라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도 회칠한 무덤의 별명과 함께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책망을 받을 만큼 이름만 신자인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셨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염병처럼 만연한 화있을진저 신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고등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존경하는 목사·장로의 이름을 물으면 무슨 말인지 그 뜻 자체를 되물을 정도로 우리 신자들에게 실행일치의 삶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조국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나라이어야 하겠기에 발버둥

을 쳐보는 것이고 깊은 고뇌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 본다. 우리 살아 남아있는 크리스천 중에서 10%만이라도 제 2의 8·15를 책임지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던 습관을 청산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짝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 번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모아 원심력을 만들고 핵폭탄같은 위력을 만들어 세상을 향해 몸도 마음도 던져보자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순교자들은 자기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조국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과감히 자신을 버렸기에 지금 여기에 나라가 있게 된 것처럼 그런 순교자들이 또한번 탄생해야겠고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내가 되어야겠다.

이름하여 진짜 예수쟁이가 10명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썩는 밀알로 자신을 땅 속 깊은 곳에 뿌릴 수 있다면 하나니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한국이 당한 모든 재앙과 고통을 넘어가시는 유월절을 이 땅에 허락하실 것이다.

적당주의와 외색주의가 사라지고 의인 10명이 순교를 통해 새로 태어날 조국 대한민국의 제 2전국 기념비에 내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순교예정자 명단에 나를 넣을 수 있는 은총을 기대해 보자.

### ■ 동정 ■

- \* 이권호 성도(1교구 논현14다락방, 김정애 집사 부군)는 교대역 부군에 '이권호 안과'를 이전 개업했다(☎ 585-4408-9)
- \* 이번 주 식사는 이민화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할렐루아찬양대는 16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이종은 목사 방송실고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명도 받고 전도도 하고

7일(토) 오후 8교구 가족들은 상계동 미도파 부군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전도도 했다. 백화점 매장, 지하철역,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가두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편 결과 이날 하루에 1400여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성경대학교와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3.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